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맞손'

익산시-원광대, 협약 체결... 희귀질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등 협력기로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6일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4층에서 정현을 시장과 원광대 총장, 산학협력단장, 의대학장, 한의대학장, 원광대병원장, 한방병원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익산시와 원광대가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희귀질환자, 가족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별 필요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어 희귀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교육 및 홍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의 협력을 통해 각종 지원과 협조하기로 했다.

정현을 시장은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상담 및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 원광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해 희귀질환 지정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단과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과 유치를 위한 관련 영역을 진행 중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는 6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김수연 운영위원장, 유재동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온 힘'

익산시,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사업 홍보·정책 논의 등 추진

익산시가 지역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서포터즈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다.

시는 6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 김수연 운영위원장, 유재동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앞서 3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세대별·직업별 특성으로 선발된 19명의 서포터즈들에 대한 격려사와 위촉장 수여, 전문 강사의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며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서포터즈단은 앞으로 2년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홍보,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개선방향 논의 및 제언,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 등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출발선이다"며 "이를 위해 익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구 의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이를 위해 서포터즈가 앞장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시의회에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협의체, 주민주도 마을복지 이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지급

군산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자 발굴 및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공모받아 최대 500만원씩 사업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비는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개 읍면동에 조직돼 있으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조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나 사업 추진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읍면동협의체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긴급생계(의료)비 지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 '영양찬 기운찬 활기찬' 찬찬찬 밑반찬 지원 사업, 너도 나도 봄날 반려식물 지원 사업, 건강 드림 구급상자 지원 사업, 공유냉장고 지원 사업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주민주도형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네트워크조직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복지증

진 및 저소득계층의 긴급한 위기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시민들의 복지참여를 더욱 촉진해 나가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희창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관협력의 중심점이 되어 지역 상황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통하여 공공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주민 사업 발굴·심의 참여예산제도 정착

군산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2018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 참여예산 위원회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명으로 구성된 810여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 올해 총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제안하고 심의해 선정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과 같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 분야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

성에 맞는 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 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강임준 시장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시민청원 성립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것"

익산시가 '익산시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립된 온라인 시민청원 1호에 대해 정현을 시장의 공식 답변 영상을 게시했다.

본 청원은 익산시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는 청원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 동안 총 513명의 '공감'을 받아 익산시 제1호 성립 청원으로 기록됐다.

현재 시는 총 13개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며 이 중 6대는 부송초, 영등초, 어양초, 이리초, 서초, 한빛초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익산시에 총 60개의 초등학교가 있어 이전에 설치된 6개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 초등학교가 설치 대상이 된다.

정 시장은 답변 영상을 통해 "한 대

설치에 약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초등학교에 일괄적으로 설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 추경예산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민청원제를 지난 2019년 3월 전북 최초로 도입해,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청원은 30일간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 성립되며, 20일 이내에 익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시 홈페이지 및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목조문화재 송림사 현장방문

익산소방서 전미희 서장은 6일 오후에 위치한 중요목조문화재인 송림사를 방문해 현장 안전지도와 병행하여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날 5일 발생한 내장사 화재를 교훈 삼아 부처님 오신날을 대비하여 익산 소재 중요목조문화재인 송림사 관계자의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화재 시 중요목조문화재 반출 및 보호조치를 위한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송림사 보광전은 17세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연구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자료로 주목받고 있는 보물 제825호이다.

이번 컨설팅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현장여건 확인 ▲소화기구 등 초기대응방안 마련 ▲송림사 주변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목조문화재 실내점검 및 관계자 화재예비교육 등이다.

전미희 서장은 "목조 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크고, 한번 소실되면 고유의 가치와 역사성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소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달라"고 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대, 식목행사 가져

군산대학교는 지난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교내 캠퍼스 일대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인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식목 행사는 군산대학교가 조성 중인 학교숲과 수목원 조성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동백나무, 수국, 반송 등이 식재됐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숲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